

5-12-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에베소서 5:10-17

말씀 제목: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깨어나라!

예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냐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 주시리라.”(요 16:13)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일들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요 11:25-26)

이천 년 전,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 그들의 몸이 지금도 여전히 무덤에 있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어 죽었던 사람들과 살아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일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피하지 않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 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3-18)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공중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영원히 살게 되는지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감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앎이니라.”(고전 15:51-58)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세상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와 지난 육천 년 동안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니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오 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 관하여
돌이키소서.”(시 90:9-13)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따라 완벽하게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3 퍼센트 정도만 두뇌를 사용하다가 죽는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의 기억력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들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더라.”(창 2:19)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후 그의 자손들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천 년 동안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온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분을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통하여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인 휴거의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날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살후 2:1-6)

그후 이천 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배교하고 있는지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 죽을 몸과 썩을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에 대하여 그 날이 구속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쟁과 소요에 관하여 들을지라도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겠지만,
당장 끝은 아니니라...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라.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리라...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와 파도가 노호하리라.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이는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왔음이라.”(눅 21:8-11;25-28) 아멘!
할렐루야!